

25년간 이어온 名聲의 이유,
합격에 필요한 깊이 있는 내용을
치밀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노하우에 있습니다!

5 급 공 채
국 립 외 교 원
입 법 고 시
2 차 시 험 대 비

합 격 을 위 한
이 유 있 는 선택

HIGH SCORE ECONOMICS

황종휴 경제학

2023년 최종합격자들의 경제학 공부이야기



합격을 위한 이유 있는 선택!

황중휴 경제학

2차 시험 합격의 관건은 경제학 고득점입니다.

원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문제풀이 연습 없이
경제학 고득점은 어렵습니다.
합격을 위한 실력 향상이 목적이려면,

**경제학 공부,
제대로 하시다!**

황중휴 경제학 연간 강의계획

예비순환은 '다이제스트 경제학'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1순환 교재는 '트리니티 경제학'이며,
2순환 교재는 '경제학 연습책', 그리고 3순환 교재는 '경제학 연습책 plus'입니다.

예비순환

수험경제학에 등장하는 각종 경제원리들을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터득할 수 있는 강의!
막연하게 보이는 경제학을 자세하고, 쉽게 분해하여 설명합니다. '정확한 이해와 직관적인 통찰력'의 절묘한 조화!

오랫동안 기본이론 강의의 정석으로 인정받아온 강의로, 기본원리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직관적 통찰력을 기르기에 가장 적합한 입문자를 위한 필수과정입니다. 경제원리를 친절하고 정교하게 전달합니다. 따라서 현실경제가 운영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시험에 필요한 응용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예비순환 강의는 그야말로 각종 고등고시를 위한 경제학 공부의 본격적인 시작이며, 수험경제학이 다루고 있는 내용의 전체적인 본(out-line)을 쓰는 과정입니다. 다이제스트 복습문제와 해설집을 활용한 적용연습과 주요 그래프를 정리한 MAP Book을 통한 관련 그래프 숙지로 경제학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1순환

경제학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과 구체적인 핵심을 균형 있게 학습하고,
주요 기술문제의 정확한 풀이를 통해 경제학 수험이론을 완성할 수 있는 강의!
경제학 실력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1순환 강의에서는 트리니티 경제학을 통해 디테일링(detailing)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비순환 강의에서 강사가 전달하는 내용이 합격을 위한 50% 정도의 수준이라면, 1순환 강의의 내용은 약 80% 수준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고득점 답안작성에 필요한 관련 이론과 모형의 성공적으로 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용의 횡적 확장(widening)과 종적 심화(deepening)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또한 기술문제의 상당부분을 1순환 강의 중에 해결할 것입니다. 따라서 1순환은 이론의 학습 후 예제를 통한 확인을 지향하는 강의입니다.

2순환

기술문제 풀이의 비중 대폭 강화 + 경제학 연습책 적극 활용 + 답안구성의 측면에서 함께 고민하는 강의!
다양한 문제를 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요이론을 체화할 수 있습니다.

2순환 강의는 '기술문제와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중심으로 한 이론의 복습'을 목표로 합니다.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설강의가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등장하는 관련 쟁점의 재확인 및 응용을 통한 사고의 확장을 도와주는 강의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수록하고 있는 연습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론과 모형의 실용성을 확인하여, 문제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즉, 2순환은 문제의 해결을 통한 이론의 확인을 지향하는 강의입니다.

3순환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주요 경제이론과 모형의 핵심들을 정리하고 응용하여,
답안지에 직접 현출하는 연습에 집중하는 최종마무리용 강의!
연습책 plus, 추가 정선문제, 진도별 주요 기술문제의 선별풀이를 통해 문제해결 감각회복과 답안작성 능력을 제고합니다.

3순환 강의에서는 예비순환, 1순환, 2순환을 통해 공부한 경제학 지식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경제현상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접근체계(frame)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즉, 단순한 암기나 유형별 정리가 아니라, 다양한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제학적 분석능력을 담금질(tempering)하는 강의입니다. 연습책 plus를 주교재로 하며, 진도별 기술문제와 해설 및 3순환용 추가 정선문제를 제공합니다.

황중휴

-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 제16회 입법고등고시 전제수석, 최연소 합격

- 제44회 행정고등고시 재경직 합격



**“多數의 선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년 이어지는 합격자들의 변함없는 선택,
2023년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J** | 2023년 5급공채 일반행정직 최종합격

경제학은 행정고시 합격에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경제학은 답을 맞았는지에 따라 점수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점수를 많이 획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초시, 재시 두 시험 모두 경제학 저득점 하였으나, 최종합격한 이번 시험에서는 시간이 남았고 다 맞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으며 점수를 확인하니 일행직렬 최고점이었습니다.

경제학은 ‘답다맞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문제풀이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이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학 답안구성은 모의고사 답안작성으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답안을 쓰다 보니 저만의 정형화된 틀이 갖추어졌습니다. ... (중략) ... 저의 경우 **황종휴 선생님의 사고체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필기한 내용을 반복해서 숙지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교과서를 참고하여 보완했습니다.

초시에는 경제학 순환 강의를 따라갔습니다. **경제학 1순환**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수업내용을 열심히 필기하며 황종휴 선생님의 사고흐름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많이 풀지 못했지만 **트리니티에 수록된 기출문제와 중요하다고 하신 문제를 중심으로 풀었습니다.** **2순환**은 실강으로 수강하며, 그때그때 수업을 복습했습니다. **연습책의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일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한 복습 및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3순환**은 오전 영상반을 수강해 일찍 공부를 시작하면서 오후 공부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정선문제는 다 풀지 못했고 복습과 체크해주신 문제만 풀이하였습니다.**

재시에는 문제풀이 중심으로 대비하며 3순환만 인강으로 수강했습니다. 스스로 문제 푸는 것이 잘 되지 않아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미시 연습책 풀이 스터디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 (중략) ... **삼시에는** 연습책 풀이, 그리고 5월부터 매일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모의고사 풀이는 처음 보는 문제에 대응하는 시각을 기를 수 있어 실전 대비에 유용했습니다.

K** | 2023년 5급공채 재경직 최종합격

재경직은 사실상 경제학 고득점이 합격에 있어 충분조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 고득점뿐만 아니라 재정학 문제들도 경제학에 가깝게 나올 때가 있고, 선택과목까지 국제경제학을 선택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경제학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황종휴 선생님의 예비순환부터 4순환 강의까지 모두 수강했고, 트리니티를 위주로 단권화, 연습책과 정선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 (중략) ...

국제경제학의 경우, 저를 포함한 많은 재경직 수험생들이 통계학을 선택하기 때문에 국제경제학을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제경제학은 크게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으로 나뉘는데, 특히 국제금융론의 모형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 모두 **계산형 문제의 경우 최대한 학습을 해놓고, 논술형 문제는 방어하는 수준으로 준비**했습니다. 논술형 문제의 경우 트리니티에 나와 있는 내용만 완벽하게 숙지해도 충분히 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재와 수업시간에 다루는 가정들과 결론 위주로 프린트에 정리를 했고, 전날엔 한 번 훑어보는 수준으로 준비했습니다.** 국제경제학 강의와 관련하여, 저는 황종휴 선생님께서 경제학 수강 시 특전으로 제공해주시는 국제경제학 특강을 수강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국제경제학 1순환도 수강을 하지 못했지만, 시간과 체력만 허락한다면 국제경제학 1순환 정도는 빠르게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서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지만 **1순환 정도를 듣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기출문제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10개년치 정도의 행시, 입시, 외시를 모두 여러 번 풀어서 본인 스스로 풀어낼 수 있고 어떤 기출문제를 만나더라도 몇 년도의 몇 번 문제인지 바로 기억이 날 정도로 학습했습니다. 저는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 나서야 경제학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기출문제의 유사한 문제를 떠올리거나 관련 풀이를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기출문제 풀이가 끝나면 **2순환 기간에는 경제학 연습책과 작년도 정선 문제집, 3순환 기간에는 3순환 모의고사, 앞서 푼 연습책의 주요 문제들, 이번 연도 정선 문제집을 위주로 문제풀이를 진행했습니다.** 경제학은 문제를 풀면서 배우는 것도 많기 때문에, 특히 어렵고 틀렸던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K** | 2023년 5급공채 재경직 최종합격

경제학은 답을 맞히는 것과 그 경제학적 해석(함의)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답'이 맞고 틀린지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 2022년도 5급공채 경제학처럼 문제가 어려웠던 경우, 답을 맞히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답이 틀린 경우 부분점수는 거의 없다시피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2023년도와 같이 문제가 평이한 경우, 여전히 답을 맞히는 것이 중요하나 일부 부분점수가 있었으며 함의의 배점이 높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답을 맞히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시되, 함의 또한 고득점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프는 최근 추세에서 기본적으로 배점이 크지 않되, 시험 난도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재경직 수석분께서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시고 최고점인 92점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최고점, 96점) 2023년도 시험은 난도가 평이했고, 함의 및 추가 점수가 있을 수 있는 구간이 많다고 생각되어 답을 몇 번씩 검토한 후 모든 문제에 대해 그래프를 그린 바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그래프 중요성이 떨어지나, 시험 난도가 평이해서 1점, 1점이 더 소중한 상황에서는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 기본적으로 황종휴 선생님의 1순환과 3순환을 들었습니다. 강의의 빠르게 듣고 문제를 풀고 교과서로 이를 보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목적의식 없는 양치기는 단순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만, 응용을 요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어려우며 자신의 경제적 직관을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공부한 방법이 달랐습니다. 미시경제학은 많은 문제를 풀어 보며, 반복적으로 틀린 유형에 대해 교과서를 발췌독하는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트리니티를 통해 정리하고, 연습책 및 정선 문제집으로 접한 문제 폭을 넓히며, 임봉욱 저 「예제와 함께하는 미시경제학」, 김영산·왕규호 저 「미시경제학」을 활용하여 직관 및 함의를 보충하고자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시중에 좋은 문제집 및 교과서가 많으니, 반복해서 틀리는 유형 등은 교과서를 읽으셔서 흔들리는 개념을 바로잡고, 함의를 더 풍부하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거시경제학은 이와 반대로, 여러 학파들의 체계에 대한 사고가 명확히 잡혀 있어야 하며, 여러 변수들의 관계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문제 푸는 개수가 적더라도, 줄글로 된 설명을 그래프와 그래프의 이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반대 또한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과서를 참조하며, 다른 서술로 쓰인 동일한 내용에 익숙해지고자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트리니티, 연습책 및 정선 문제집을 활용하면서, 정운찬·김영식 저

「거시경제론」, 주상영 저 「거시경제학」, 맨큐 저 「거시경제학」 등을 통독하고 문제풀이에 그 내용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최근 미시적 경향을 반영한 거시 교과서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교과서들도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K** | 2023년(제7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

최근 몇 년간 계산 위주로 경제학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답을 틀리면 고득점이 어렵다는 생각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목차의 구성과 개념, 함의 서술은 황종휴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잡아주시는 목차나 모의고사 최고답안을 참고했습니다. ... (중략) ... 경제학은 개념이해, 문제풀이, 그리고 답안구성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경제학과이지만, 학교 미시경제학 및 거시경제학 수업을 코로나시기에 수강해서 이를 핑계로 열심히 듣지 않았기 때문에 황종휴 선생님의 예비순환부터 3순환까지 모든 강의를 실감으로 수강했습니다.

1. 개념이해

경제학의 기본적인 개념은 예비순환 기간 동안 교과서를 읽으면서 익혔습니다. 미시경제학의 경우 이준구 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의 경우 김경수/박대근 저 거시경제학을 활용했습니다. 1순환 이후에는 헛갈리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트리니티를 다시 읽어 보면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미시경제학의 경우 문제풀이에 집중하느라 개념을 놓칠 수 있으나, 목차를 구성할 때나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풀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시경제학의 경우, 미시경제학보다도 개념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각 모형마다 기본가정과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시경제학은 학파와 모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념정리를 통해 답안작성 시 여러 학파의 주장이 섞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저의 경우 고전적 이분성과 화폐의 중립성을 자주 헛갈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교과서와 트리니티 등의 교재를 통해 정확히 정리해 두면 문제를 풀 때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국제경제학은 제가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특히 휘발성이 강했기 때문에 교과서와 교재를 회독하면서 개념을 숙지했습니다. 예비순환 기간에는 황종휴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김신행 저 국제경제론을 읽었습니다. 1순환 기간에는 트리니티 국제경제학을 진도에 맞추어 읽었습니다. PSAT 기간 동안 국제경제학은 거의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3순환 기간에도 수업 전에 예습삼아 트리니티를 읽으면서 국제경제학 내용에 다시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문제풀이

경제학은 문제를 풀어 정확한 답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저는 많은 문제를 풀어 다양한 유형을 접해 보고자 했습니다. 우선 **예비순환 기간**에는 **다이제스트** 경제학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부터 풀어보았습니다. 이때는 **답안작성**보다는 **정확한 답을 도출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순환 기간** 동안 진행된 **종합반 튜터님**께서 진행하시는 **스터디**를 통해 연습책 수록 문제들 중 쉬운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스터디 종료 이후 1순환 기간** 전까지 혼자 연습책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문제풀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의 답안지를 보면서 풀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순환 수업** 동안은 **트리니티** 수록 문제들과 **황종휴**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풀어주시는 기출문제들을 풀었습니다. **1순환 수업 종료 이후**에는 **1순환 이전에 풀던 연습책**을 마저 풀었습니다.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연습책을 1회독했습니다. 이때는 **1순환 이후**였기 때문에 답안지는 보다, 안 보다는 반복하면서 풀었습니다.

2순환은 연습책 풀이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게 됩니다. 우선 **조교님**이 칠판에 적어주시는 문제들을 수업 전에 풀어 보고, 선생님께서 수업 때 풀어주시는 방식과 제 풀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습** 때 제대로 풀지 못했던 문제들은 복습할 때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또한 **수업** 중에 선생님께서 추가적으로 풀어주시는 연습책 문제들이 있는데, 해당 문제들은 따로 표시해 두고 복습할 때 풀었습니다.

PSAT 기간에는 경제학 감을 잃지 않기 위해 하루에 한 문제라도 꾸준히 풀고자 했습니다. **1월**에는 **직렬별**로 기출문제 **1개년씩**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예컨대 어제 **2022년 행정고시** 경제학을 풀었다면 오늘은 **2022년 외교관** 경제학을 푸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2월**에는 **PSAT**에 집중하기 위해 하루에 기출문제 한 문제만 **답안작성** 연습을 했습니다. **PSAT** 기간 동안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경제학을 한 덕분에 **PSAT 이후**에 다시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많이 해매지는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순환 때는 **정선문제**와 **추가문제**, 그리고 **기출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또한 **2023년 3순환**에서는 **황종휴** 선생님께서 **종강** 후 **계획표**를 나눠주셨기 때문에 해당 **계획표**에 맞추어 **정선 문제집**과 **기출 문제 모음집**을 다시 한번 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6월** 경제학 **양치기**에 **돌입**했을 때는 **연습책** 별 세 개짜리 문제들만 빠르게 풀어보면서 저의 문제풀이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3. 단권화 및 답안작성

경제학은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지는 않았고, **2순환** 때부터 **주요 공식**이나 **모형의 기본 가정** 등을 **포스트잇**에 적어 관련 연습책 문제 옆에 붙이는 방식으로 **단권화**를 진행했습니다. **국제경제학**의 경우,

시험장에 **책**을 세 권 들고 **가고 싶지 않아서 거시경제학 연습책** 맨 **마지막** 단원에 있는 **개방경제 파트**에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단권화**를 활용해 **시험 직전**에 **주요 공식**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제학의 경우, **답안**을 여러 번 쓰면 **목차나 틀**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답안구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주로 **'모형의 설정**이나 **기본 가정 - 설문의 해결 - 그래프의 도해'**의 단계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답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수식의 줄**을 바꾸거나 **그래프**를 크게 그렸습니다. **3순환 이후**에는 **문제풀이**에 집중하기 위해 **답안**은 하루에 몇 문제 정도를 간략하게 **목차구성** 정도로만 작성했습니다.

4. 스터디 활용

경제학은 문제풀이나 **답안작성**의 강제성을 위해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예비순환**과 **1순환** 때 진행된 **종합반 튜터 스터디**를 통해 **연습책**이나 **기출문제 풀이**를 했습니다. **3순환 이후**에는 **대학모의고사 스터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접했습니다.

P** | 2023년 5급공채 일반행정직 최종합격

경제고시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경제학이 가지는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험기간** 내내 **황종휴** 선생님의 **커리큘럼**만 따라갔습니다. **2021년**에는 **예비, 1, 2, 3, 4순환** 모두 수강했고, **2022년**에는 **3, 4순환** 강의만 수강했습니다. 별도로 교과서를 읽지는 않았고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 11월 즈음부터 **연습책** 문제를 풀기 시작해 **1차 시험** 전까지 **전체 문제**를 한 번 풀어보았습니다. **2022년 3월**부터는 **3순환** 강의를 수강하며 **수업 전**날 **3순환 교재**인 **정선 문제집**에서 **수업** **진도**까지의 모든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3순환** 강의를 들으면서는 제 풀이와 비교하며 **수업**을 들었습니다. **3순환**이 끝날 무렵 **정선 문제집** 전체 문제를 한 번 풀게 되었고, 이후 다른 과목 **3순환** 기간 동안에는 **연습책** 문제와 **정선 문제집** 문제 중 틀렸던 문제,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2022년도 **시험**에서 **1문의 접근 개념** 일부 및 **2문** 일부 수식을 잘 알지 못해 최대한 아는 선에서 문제를 풀고 합격자 평균 정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2022년 11월** 즈음부터 다시 **연습책**을 풀기 시작해 **1차 시험** 전까지 **전체 문제**를 다시 풀어보았고, **3순환** 기간에도 역시 **정선 문제집**을 **진도**에 맞춰 풀어보았습니다. **경제학 3순환** 종료 이후 다른 과목 **3순환** 기간에 **정선 문제집**의 틀렸던 문제에 더해 **임봉욱** 교수님의 **'미시경제학 연습'**의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2023년**

합격을 위한 이유 있는 선택!

황종휴 경제학

2차 시험에서는 어려웠던 2문과 유사한 문제를 정선 문제집과 '미시 경제학 연습' 교재에서 본 기억이 있어 풀 수 있었습니다.

경제학은 다른 과목과 달리 답안작성 연습이나 목차구성 등에 시간을 크게 할애하지 않고 대신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나 강사님들의 문제집, 교수님 기본서 문제 등 여러 문제를 풀고 연습하는 게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개념이나 합의 등에 사용할 내용 등은 문제를 풀거나 기본서 등을 통해 미리 정리해놓고 암기해놓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C** | 2023년(제1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

1순환의 경우 트리니티를 기반으로 기본문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추어 자신만의 서브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순환은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되기에 서브노트를 보완하며 연습책을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하되, 교과서 연습문제 등을 추가적으로 풀며 최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풀고자 했습니다. 또한 한 번에 풀리지 않는 문제, 어려운 문제 등은 따로 표시해두어 3순환 이후 계속해서 다시 풀었습니다.

3순환은 실강으로 수강하며 매일 모의고사에 참여했습니다. 모의고사 전 제 서브노트를 암기했고, 집중하여 수업을 들은 이후 정선 문제집에서 그날 황종휴 선생님께서 풀어주시는 문제 중 어려운 문제들과 풀어주지 않으신 문제들을 스스로 풀며 복습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전에 표시해 둔 다른 문제집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수업 진도에 맞추어 다시 풀었습니다.

저는 3월부터 황종휴 선생님의 경제학 집중 관리반에 다녔습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에서 경제학 집중 관리반에 등록했고 또한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저는 경제학이 상대적으로 약한 과목이었기에 매일 경제학 모의고사를 보기를 희망했습니다. 매일 진도에 맞추어 경제학 모의고사를 보고, 합격생분께서 채점 및 코멘트를 해주시기에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강제성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관리반은 모두가 앞을 바라보는 교실 구조로 되어있고, 교시제로 운영되어 공부에 집중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셋째, 경제학 문제를 풀며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생길 때마다 질문지를 통해 황종휴 선생님께 질문드릴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1~2일 내로 질문지에 코멘트 형식으로 답변을 해주신 덕에 궁금증을 해소하고 경제학 공부를 더욱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J** | 2023년 5급공채 재경직 최종합격

단권화 작업에 사용한 교재를 요약하면 경제학은 황종휴 선생님의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트리니티에서 잘 모르는 개념이나 어려운 모형을 직접 노트 한 권에 손으로 작성했고, 재정학은 재정학 트리니티를 중심으로 하여 합격생에게 받은 교과서 요약본을 읽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교재에 추가하였습니다. ... (중략) ...

너무나 힘들게 얻은 소중한 기회였기 때문에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공부계획을 세우던 와중에 황종휴 경제학 집중 관리반 2기를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제학이 가장 어려웠던 저에게 딱 맞는 과정이라는 생각에 등록하였습니다. 평소에 생각한 대로 황종휴 선생님은 정말 책임감이 강한 분이었고 날마다 관리반에 들어와 밀착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실원 전체가 60명 내외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부상황 체크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해진 자리와 출석 체크 시스템, 다른 교재 대출 등의 혜택 제공은 제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내부에서 스터디원도 구성할 수 있고 스터디 룸도 제공해주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시험시간에 맞춰 시험 전날까지 같이 답안작성 연습을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너무 잘 맞는 분들을 만나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경제학 집중 관리반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또한, 경제학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께도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매일 관리반에서 다 같이 10시부터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그냥 평소처럼 시험을 보는 기분이 들었고 하나도 떨리지 않고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 (중략) ... 3월에는 경제학은 관리반에서 제공하는 3순환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감각을 익히고 전에 만들었던 서브노트 내의 개념을 암기했고 3순환 필기를 보면서 진도에 맞게 정선문제를 풀었습니다. ... (중략) ...

경제학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전공생이 아니었으므로 개념이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예비순환부터 3순환까지 모두 황종휴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트리니티를 정독하는 연습을 했고 상당히 반복해서 읽은 이후에 연습책과 정선문제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트리니티에서 여러 번 읽어도 모르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은 sub로 만들어서 올해 3순환 기간에도 자투리시간을 이용해서 읽었습니다. 올해 문제에서도 3-2를 전부 틀렸는데 저는 이러한 오답도 개념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경제학을 수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트리니티에 있는 내용 정도는 완벽하게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풀이를 할 때는 3순환 시기에는 시간 제약으로 인해서 아는 문제는 풀이만 떠올리고 넘어갔는데 시간상 여유가 있다면 답안형식으로 작성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실력향상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목 특성상 답안작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경제학 집중 관리반에서 보는 시험에 시험 전날을 제외하고 매일 응시하였습니다.

*** | 2023년 5급공채 재경직 최종합격

1. 미시경제학

황중휴 강사님의 경우 1순환부터 활용하는 트리니티 교재가 잘 정리되어 있어 이를 중심으로 강의를 따라가는 것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경제학을 전과목으로 생각하였기에 학원강의에 더해 고난도의 교과서를 함께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학원강의 진도에 맞춰서 김영산/왕규호 교수님의 미시경제학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 (중략) ... **추천드리는 공부법**으로는 예비순환 과정에서 교과서 등을 활용한 탄탄한 기본기가 밑받침된다면 트리니티 등의 기본서를 통한 개념 학습 + 김영산/왕규호 저 문제풀이를, 만약 기본기가 부족하다면 기본서 위주의 개념학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2순환부터 풀게 되는 연습책의 경우 전체적인 난도는 교과서보다 낮지만, 난이도 별, 챕터 별 문제가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법 암기와 답안작성연습 등이 시작되어 시간적인 압박이 강해지는 2순환 시기부터는 교과서보다 연습책 위주의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쉬운 문제라도 연습책에 수록된 문제는 최소한 한 번씩은 풀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 (중략) ... 또한 이 기간을 통해 연습책의 별 3개 문제는 여러 번 풀어보며 고난도 문제에 익숙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거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은 미시경제학과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공부를 마친 이후에야 전반적인 감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다소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고전파 모형과 케인즈 학파의 IS-LM에서 AD-AS로 확장되는 과정은 처음 공부하는 분들에게 큰 어려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앞부분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꼭 참고 강의진도에 따라 모형의 완성단계에 도달할 경우 큰 그림이 완성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시경제학과는 달리 거시경제학은 예비순환 단계에는 강의를 충실히 따라가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이후에 교과서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거시경제학 교과서는 미시경제학에 비해 전반적인 난도가 높기에 초반부터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 (중략) ... **2순환부터는 미시경제학과 마찬가지로 연습책을 중심으로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것**

을 추천드립니다. 미시와 달리 거시의 문제풀이는 단순 계산이 아닌 그래프 분석과 경제현상 분석이 중심이 되기에 문제풀이 후 모범답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력향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연습책의 경우 해설지가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거시 약술 준비 및 경제현상 분석에 대한 연습에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제약으로 교과서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습책을 반복해 학습하는 것만으로 현재 출제기조에는 충분한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PSAT 시즌 및 3순환

PSAT에 자신이 있으신 경우 PSAT 시즌이 다른 수험생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고난도의 교과서 문제풀이와 개념정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이후 3순환을 통해 학원 모의고사를 충실히 따라가며 감을 유지한다면 경제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3순환 시기에는 기존에 풀던 문제집에서 중요하다고 체크해 놓은 부분에 더해 최근 3순환 모의고사 문제는 최대한 모아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올해와 작년의 경우 황중휴 강사님의 모의고사에서 동태적 거시경제 모형에 관한 연습문제를 수록하여 혹시 모를 불의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 | 2023년 5급공채 일반행정직 최종합격

일반행정직은 논문과목이 평범한 실력임을 가정 시 경제학을 잘할 경우 고득점 합격, 경제학을 못할 경우 합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경우 마지막 해 전략을 논문과목 합격자 평균 이상을 목표로 하였고 실제 이를 달성하였기에 경제학 점수가 낮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높은 등수로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바짝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실력을 끌어올린 후 논문과목 공부시기에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황중휴 선생님의 미시, 거시 예비~3순환을, 국제경제학 1순환을 수강하는 것으로 강의수강은 마무리했으며 주요 공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처음 보는 문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혼자 풀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것은 여러분 본인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혼자 가진 지식으로 1문제를 푸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해설을 참고하여 100문제를 푸는 것은 '암기'와 다름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를 스캔하듯 학습하여 응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효율성을 고려하여 후자가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 그러한 사람 아님을 일찍 알았기에 처음 보는 문제는 무조건 혼자 할 수 있는 만큼 풀도록 하였습니다.

합격을 위한 이유 있는 선택!

황종휴 경제학

둘째, 시중에 나온 모든 문제 유형을 파악한다는 마음으로 다양한 교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1순환을 수강하며 곧바로 황종휴 선생님의 미/거시 연습책을 풀기 시작했고, 2년차엔 국제경제학 1순환도 수강하였으며 국제경제학 연습책도 풀었습니다. 국제경제학 자체를 하나의 과목으로 공부하기엔 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학 내 포함된 국제경제학 주제가 조금씩 외연을 넓혀가는 만큼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기본문제를 푸는 것은 미/거시 경제학의 학습 연장선 차원에서 남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H** | 2023년(제1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

경제학은 개념이해, 문제풀이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우선, 개념 이해는 황종휴 선생님의 예비순환, 1순환을 수강해 기본적인 내용을 접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트리니티 교재에 수록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읽으며 강의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고자 노력했으며 예제나 교재에 수록된 해당 범위의 기출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 (중략) ...

한편 문제풀이의 경우 다양한 문제를 최대한 접하는 식으로 대비했습니다. 특히 '미시경제학'은 내용에 대한 이해 후 얼마나 성실하게 문제를 풀어왔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습책, 정선 문제집뿐만 아니라 시중의 다른 문제집, 임봉욱 쌤의 미시경제학 연습을 반복해서 계속 풀었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보면 계산실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응용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접근방법을 떠올려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에 3순환 기간까지도 '경제학 15문제 문제풀이 스터디' 등에 가입해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를 풀도록 습관화했습니다.

덧붙여 단권화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경제학'의 경우 명확하게 문제에서 묻지 않으나 답을 도출하기 위해 립진스키 정리, PPC의 변화 등 여러 내용을 서술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트리니티 교재에는 서로 연관된 내용이 대목차, 소목차 아래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교재에 수업에서 들은 내용, 교과서에서 알게 된 내용을 덧붙이는 식으로 단권화를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권화를 진행할 때 '인플레이션의 위험성'과 같은 서술형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보다 풍부하게 답변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학은 '답을 다 맞히기'를 목표로 하지만 실상 현장에서는 도저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할지 막막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고 최대한 점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답을 다 맞히더라도 도출 과정, 그래프, 합의, 개념 등을 제대로 서술하지 않을 경우 고득점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원모의고사 응시, 경제학 집중 관리반 수강 등을 통해 자신의 답안구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중략) ...

2023년도엔 1차 면제라는 이득이 있었지만 면접 탈락이라는 아픔에 초기에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시기가 지난 후에는 마지막 시험이라는 생각으로 황종휴 선생님의 경제학 집중 관리반에 지원해 경제학에 주력하고자 했습니다. 경제학 집중 관리반에서는 (1) 교시제 운영을 통한 절대적 공부량 확보, (2) 자율적 스터디 구성, (3) 매일 과제 또는 모의고사를 통한 경제학 공부 보충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황종휴 선생님께서 선별한 문제들을 풀며 미/거시, 국제경제학 전범위를 반복할 수 있었고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꼼꼼한 채점으로 제가 얼마나 경제학 답안을 부실하게 쓰고 있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경제학 집중 관리반에서 면탈자들을 만나 스터디를 구성함으로써 경제학 기출뿐만 아니라 국제법, 통합논술 등 다양한 과목에 대해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학 집중 관리반을 통해 다른 과목의 3순환 시기에도 의무적으로 경제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석차를 통해 경제학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학이 작년 대비 28점 정도 상승함으로써 제가 합격 안정권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중요 과목으로 작용했습니다.

K** | 2023년 5급공채 일반행정직 최종합격

3순환 기간에는 황종휴 선생님의 경제학 관리반에 들어갔습니다. 재시와 삼시를 거치며 경제학 3순환 기간에는 실력이 한껏 올라오지만 시험이 다가오면 다른 논문과목 공부에 치여 경제학에 소홀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게는 정말로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황종휴 선생님 또는 전담조교님께 헛갈리는 개념 등을 물어볼 수 있어, 바쁜 시기에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음이 힘든 시기에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관리반을 방문하시고 한마디씩 해주시는 조언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매일 보는 경제학 시험과 과제도 경제학 공부를 의무적으로 해 감을 잃지 않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 (중략) ...

경제학의 경우 공부 초반에는 문제를 제대로 분석해 푸는 법을 암기하는 것이, 후반에는 답안지를 보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든 풀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반과 관련해서는 연습책이 가장 좋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유형의 문제를 담고 있는 만큼 빠른 실력 신장을 위해서는 문제와 답지를 비교해가며 유형별로 답안의 전개방식, 개념정의, 합의를 암기하고 흡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보여도 답지가 내용이 다르다면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문제의 풀이방법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습책 전용 연습노트를 미시, 거시 각각 한권씩 두고, 유형별 풀이법 등을 정리하고 문제별 실수 및 유의점을 기록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공부량이 많아 연습책을 찬찬히 풀기란 불가능한 만큼, 이런 정리노트를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B** | 2023년(제11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

경제학은 수험과목 중에서 가장 편차가 큰 과목이니만큼 합격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경제학은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학을 잘 못하더라도 방어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다른 합격자들에 근접하는 실력을 위해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학 공부는 황중휴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순환기간에 실강 또는 인강을 듣고, 복습을 하며 개념을 다지고, 개념을 토대로 연습책과 같은 문제풀이를 꾸준히 했습니다. 초시 때에 황중휴 선생님의 통합논술 경제학 특강도 신청하여 경제학만은 전 개년 기출을 풀어본 바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수식, 그래프, 서술의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도록 노력하며 작성했습니다. 서술을 보강하기 위해 1순환 혹은 2순환 기간에 교과서를 읽으며 교수님의 서술 중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부분을 포스트잇에 작성하여 트리니티에 단권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 (중략) ...

경제학 공부는 가지고 있는 문제의 풀 중 시험 전날에 봐야할 문제들로 추려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연습책 짝수번, 홀수번 차례로 전체를 훑고 답안지를 봐야했던 문제 혹은 주요 문제라서 한번 더 풀어봐야 할 문제들을 선별하여 표시했습니다. 2회독 때에는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잘 안 풀렸던 문제를 선별하여 시험 전날에 3회독을 하였습니다. ... (중략) ...

저는 경제학 교과서를 읽었지만, 지나고 나니 황중휴 선생님께서 순환강의를 진행하시면서 교과서의 중요 부분들을 확인시켜주시기 때문에 교과서를 통독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뒤의 예제와 이에 대한 교수님의 해설을 보면서 교수님의 풀이방식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비, 1순환 때 예제를 풀어보시고 3순환 때 선별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년 시험이 2021년 시험에 비해 수월했다는 평이 있어 2023년 시험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대비하고자 황중휴 선생님의 경제학 집중 관리반에 들어갔습니다. 3순환을 인강으로 수강하며 관리반의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는 3순환 정선문제 풀이 과제와 연습책을 풀었습니다. 3순환 이후에는 관리반에서 내주는 과제 외로 다른 강사님의 3순환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도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고, 연습책을 이어서 풀었습니다.

경제학 집중 관리반을 수강하며 좋았던 점은, 주위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자극받아 긴장감을 유지하며 공부할 수 있다는 점, 교시제로 진행하여 쉬는 시간과 수업시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다는 점, 스터디를 만들기가 용이하다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황중휴 선생님께 상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질문지를 작성해서 낼 수도 있고, 황중휴 선생

님께서 실강 쉬는 시간마다 오셨을 때 질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순환 강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선생님께 직접 질문을 하고 즉각 답변을 받기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상당한 이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경제학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강의에서 진행되는 모의고사와 답안을 관리반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해주셨던 점도 감사했습니다. 또한, 학원 관계자분들께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빈 강의실을 스터디 룸이나 자율학습실로 잡아주셔서 공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셨고, 학습실에 조교분들이 상주하여 학습 분위기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C** | 2023년(제11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

저는 기본적으로 예비순환부터 3순환까지 모두 황중휴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기에, 선생님께서 강의 때 사용하시는 교재들로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순환별로 말씀드리자면, 예비순환 때에는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개념과 풀이법을 익히는 데 집중하였지만, 1순환 때부터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며 제대로 관련 개념을 이해했는지 점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개념의 경우 주로 '트리니티' 교재를 활용하였습니다. 고시 진입 후 처음으로 경제학을 접했다보니 바로 문제를 풀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강의가 끝난 후 다이제스트, 트리니티 등 순환 별 교재와 강의시간에 한 필기를 통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한 후 교재에 수록된 문제 혹은 수업시간에 나누어주신 보충문제들을 풀어보며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특히 거시경제학의 경우 주로 계산이 많은 미시경제학에 비해 서술 형식으로 작성해야 할 내용이 비교적 많아 개념의 정의와 가정, 풀이 방법뿐만 아니라 줄글로 작성할 수 있도록 교재 속의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풀이의 경우, 저는 주로 연습책을 활용하였습니다. 3순환 때에는 정선 문제집을 풀기도 하였지만, 1순환과 2순환, 3순환이 끝나고 시험 직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계속 연습책을 풀며 최소 3번 이상씩은 풀었습니다. 문제집 속 문제의 개수가 매우 많다 보니 모든 문제를 풀고 넘어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짝수 유형만 다 푼 후 다시 홀수로 돌아가 푸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또한 헛갈렸던 문제나 확실히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들은 따로 체크해 두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중략) ... 경제학 문제풀이의 목적이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풀어봤던 기억을 토대로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해설을 보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해설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권화의 경우, 2순환 때에 연습책이 강의교재로 사용되었기에 필기를 교재 내에 정리해 두고 나중에 일종의 단권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합격을 위한 이유 있는 선택!

황종휴 경제학

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연습책 문제풀이를 할 때 시험 직전에 꼭 다시 한번 봐야할 문제와 개념들을 체크해두어 시험 전날에 가볍게 점검하였습니다. ... (중략) ...

외교원의 경우 국제경제학 문제가 반드시 1문제는 출제되기 때문에 미시/거시 못지않게 꼼꼼히 봐야할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예비순할 때 교과서로 수업이 진행되어 교과서 전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경제학의 경우 다른 과목들에 비해 다양한 모형이 나오고 각 모형의 가정 등 기본적인 사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따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H** | 2023년 5급공채 일반행정직 최종합격

행시의 또 다른 별명이 '경제고사'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2차 과목 중 경제학이 차지하는 비중과 존재감은 압도적입니다. 그만큼 경제학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이 어렵게 나온 해에는 경제학만 잘 방어해도 합격할 수 있으며, 경제학이 쉽게 나온 해에는 경제학을 잘 봐야 합격함은 물론이고 경제학 점수가 합격자의 등수를 결정합니다. 때문에 수험생들은 자연스럽게 경제학에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수험가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하므로 어떤 강사님을 자신 있게 추천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경제학에서만큼은 단연컨대 황종휴 강사님이 합격으로 가는 최고의 길 하나일 것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경제학을 핵심적인 내용만으로 콤팩트하게, 주제별 중요도에 따라 강약조절을 하며, 풍부한 설명을 바탕으로 깔끔하게 전달해 주십니다. 저는 4년의 수험 기간 내내 황종휴 강사님의 수업만을 반복해 들었으며, PSAT을 양치기하듯이 연습책을 수차례 회독하며 경제학 문제풀이를 위한 감을 쌓았습니다.

C** | 2023년 5급공채 재경직 최종합격

황종휴 선생님의 '경제학 집중 관리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선 제 요구와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해 입실하게 되었고, 3순환 시기 꾸준한 학습시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집중 관리반 실원분들도 또한 저와 같은 상황에 있거나,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 좋은 학습 분위기 내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시공부에 진입한 후 처음으로 스터디를 관리반을 통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법 스터디로 시작하였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서로 실력과 공부방향이 유사하여 다른 과목까지 모두 2차 시험 직전까지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중 관리반을 통해 올해 3순환 시기 원했던 바를 모두 얻어낼 수 있었고 실력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3순환 강의를 듣지 않는 대신 강의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문제풀이와 답안작성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학 기간의 경우 행정법 암기를 제외하고 모든 시간을 문제풀이와 관리반 내 모의고사 응시에 할애했습니다. 매일 정선 50~60문제를 풀이하며 감을 끌어올렸고, 그 외 시간에 경제학 교과서 공부와 행정법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 (중략) ...

경제학의 경우 작은 양이더라도 꾸준한 문제풀이 시간을 확보해야 함은 필수입니다. 특히 3순환 시기 논문과목 기간이더라도 반드시 감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올해 3순환 시기 강의는 수강하지 않았으며, 경제학 집중 관리반 내 제공되는 과제와 황종휴 선생님 모의고사를 활용했습니다. 당시 트리니티 빈칸 채우기로 기본개념을 상기할 수 있었으며, 매일 정해진 정선 문제집 50~60문제와 모의고사를 풀어나가며 문제풀이의 감을 올렸습니다. 3순환 기간의 경우 경제학 공부에 80% 이상의 공부량을 두었으며, 이후 다른 과목기간에도 집중 관리반에서 세션별로 제공되는 모의고사에 성실히 참여하였고 정선 문제집 풀이 외에 교과서 회독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중략) ...

종합반 등록에 대해 비용, 커리큘럼 등의 다양한 이유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또한 고시촌에 들어오고 2번의 시험을 치른 후에야 종합반의 일종인 경제학 집중 관리반에 등록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점으로 본인과 실력수준이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 다른 수험생들과의 성적 비교로 본인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공부시간을 반강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학 집중 관리반의 경우 이전년도 면탈자분들과 실력자분들이 많아서 기존에 혼자 공부했던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과는 다른 면학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격려해 주신 황종휴 선생님과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실원분들에게 자극을 받으며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외에도 관리반 내 스터디원들과 수험자료뿐만 아니라 각자의 수험고민들을 공유하면서 혼자 공부했다면 퍼졌을 시기에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공부시간을 더욱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공부해왔던 수험생분들이나 일정한 공부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3순환 기간만큼은 새로운 자극제로써 집중 관리반을 활용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추천드립니다.

P** | 2023년 5급공채 재경직 최종합격

황종휴 선생님 경제학, 재정학, 국제경제학을 모두 1순환 실강을 수강하였습니다. 당시 비록 만 3년의 수험생활을 거친 상태였으나



여전히 기본적인 경제학 개념들이 튼튼하게 잡혀있지 않아, 인강 수강에서의 집중력 부족 개선이 불가능한 문제, 지속적인 학습 결과 및 실력 검증에의 미참여(실제 모의고사 미응시) 등의 한계를 크게 받아들이실 강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생님을 직접 보며 수업 집중력을 높이기도 하였으며, 지속적인 모의고사 응시를 통해 제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으며 공부방향을 잡아갔습니다. ... (중략) ...

기존에도 1차 공부를 평균적 수험생분들의 학습량에 비해 적게 투자한 편이라고 생각했으나, 특히 먼탈로 인해 아예 1차를 고려하지 않게 된 만큼 중간목표가 부재한 상황이었으며, 지속적으로 꾸준한 공부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황중휴 선생님의 경제학 집중 관리반에 입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 스스로가 컨디션 저하 등으로 처지는 날에도 주변 학우분들의 학습열의를 보며 다시금 동기부여 되곤 해 더욱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주기적인 모의고사 응시를 통해서 객관적 위치 확인 및 실수, 약점 등을 노출하여 이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보다 효율적인 경제학 공부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경제학 문제풀이에서 막힐 때 외부보다 수월하게 황중휴 선생님께 질문드릴 수 있어 미시적으로도 보다 빨리 막힌 지점을 해소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문제집과 모의고사를 반복적으로 꾸준히 풀고자 하였습니 다. 합격 전까지 연습책의 경우 거의 6회독은 하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 수가 매우 많지만, 저는 어떤 공부를 하는 시기라도 경제학 문제풀이는 일정 분량 이상 항상 매일 풀고자 하였습니다. 연습책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풀면서 어느 정도 풀이 과정이 체화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문제집근이 다소 어려울지라도, 반복적인 꾸준한 문제풀이를 통해 경제학적 사고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중략) ...

올해 경제학 고득점은 강의와 모의고사, 문제집을 어렵더라도 꾸준히 풀어나갔던 것이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1문의 경우에도 연습책 및 정선 문제집에 포함되었던 문제였고, 2문의 경우도 기본급이 음수가 되어 대리인의 소득 일부를 빼앗은 뒤 보수계약이 시작되는 구조의 문제를 황중휴 선생님의 강의에서 들었던 기억이나 정확히 풀 수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에 자조하시기 보다는, 다른 수험생이 충분히 푸는 문제를 빠르고 정확히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에 최대한 접근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 | 2023년(제11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

O** | 2023년 5급공채 일반행정직 최종합격

2023년도에는 제가 경제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못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기초부터 쌓자는 마인드로 황중휴 선생님의 1순환, 2순환, 3순환을 수강하였습니다. 황중휴 선생님은 직관을 가르쳐주셔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는 것 같습니다. ... (중략) ... 황중휴 선생님의 연습책의 경우 워낙 수험생들 사이 유명한 책이라서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풀었습니다. 작년 시험 불합격 이후로는 경제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해보자는 생각에 연습책 신판을 새로 사 풀면서 초심을 잡았습니다. 또한 트리니티 완성하기의 경우 작년과 올해 3순환에 집중적으로 여러 번 풀었습니다.

J** | 2023년 5급공채 일반행정직 최종합격

경제학의 경우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느낀 과목이었습니다. 황중휴 선생님의 2순환 강의를 수강하면서도 해답을 많이 참고하여 문제 풀이를 할 수 밖에 없었고, 특히 작년까지의 기초가 워낙 어렵게 출제되기도 해서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과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합격을 견인한 과목이 되기도 하였는데, 그 극복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해와 암기

2020년, 2021년 수강했던 황중휴 강사님의 경제학 강의는 모두 실감으로 수강했습니다. 특히 예비, 1순환 때는 새롭게 배우는 개념이 많아 강의에 100% 집중하며 수업을 따라갔고, 3공 노트를 바인더에 추가해가면서 수업내용을 '최대한 수업시간에' 정리했습니다. (이는 제가 손으로 쓰면서 들을 때 집중이 잘 되었기 때문에 사용한 방법이며, 강의시간 외 노트를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노트에는 '개념-수식-그래프-함의'로 미시, 거시, 국제 경제학 모두 이러한 노트를 만들어 수업 이해 및 시험 직전 암기에 활용했습니다.

2. 문제 많이 풀기, 정확한 답 도출 연습

황중휴 강사님 강의를 따라가면서 강사님 교재인 다이제스트, 트리니티 문제를 모두 풀었고 이준구 교수님의 미시경제학 교과서 문제도 풀었습니다. 연습책의 경우, 빠르게 진도를 넘기기 위해 먼저 기출문제와 중요도가 높은(별 3개) 문제를 풀고 나서 나머지 문제들을 처리했습니다. 사실 연습책 문제는 개념을 알아도 처음에는 접근법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해설을 보고 풀이방법을 암기해서라도 문제를 풀고, 이를 체크해둔 뒤 다시 풀어보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합격을 위한 이유 있는 선택! 황종휴 경제학

3. 답안연습

혼자 연습책 등 문제를 풀 때는 완벽한 답안 형태로 쓰기보다 답을 도출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3순환 기간 때만큼은 모의고사 및 혼자 문제를 풀 때도 최대한 '개념-수식 및 그래프-답 도출-함의'의 틀을 따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올해 문제의 경우에도 1~3문 모두 수식, 그래프, 답 도출 외에 줄글 형태로 정확한 개념과 주어진 배경에 맞는 함의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답안연습 없이 문제의 답안 도출할 경우, 실제 답안지를 쓸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할지(모형의 가정, 전제, 개념 등등) 고민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바, 이러한 연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J** | 2023년(제11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

처음으로 들어간 2차를 끝내고 경제학 문제풀이에 대한 필요성을 간절히 느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자 처음으로 노력했던 시기였습니다. 최근 5개년 기출을 풀어보았고 무료특강으로 제공되었던 황종휴 선생님의 기출해설강의도 들었습니다. **원론적인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황종휴 선생님의 강의가 잘 맞았습니다. ... (중략) ...**

2022년 10월에 대면 스터디에 참여하면서 동기부여가 강해졌고 다시금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경제학 순환강의는 따로 듣지 않고 **2022년 대비 정선 문제집과 트리니티에 실려 있는 예제, 행외시 기출문제를 홀로 풀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때 헛갈리는 개념은 책으로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경제학 실력을 끌어올렸던 것은 실강 수강, 모의고사 제출, 경제학 문제풀이 스터디였습니다.**

2023년 3월 고시촌에 들어오면서 황종휴 선생님의 실강을 들었습니다. 인강은 다시 돌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는 나태한 저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강의 중 딴짓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실강은 놓치면 다시 못 듣는다는 마음으로 모든 시간을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머릿속 정리되지 않은 개념들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5월에 진행된 국제경제학 실강도 수강했습니다.**

나아가 실강을 듣는 만큼 모의고사를 모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수강했습니다. 심지어 한 문제를 잘못 파악해서 전혀 다른 답안을 적었다는 것을 깨달은 날에도 제출했습니다. **모의고사를 제 시간에 제출하는 것은 강의를 따라가는 데에 있어서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잘 풀지 못한 모의고사 문제는 일요일에 스터디원과 시간을 재고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 (중략) ...**

황종휴 선생님의 3순환을 실강으로 듣는 경우 강의에서 꾸려주는 복습 스터디가 있습니다. 해당 스터디를 2차 직전까지 지속했습니다. **3순환시기에는 매일의 복습을 강제하기 위한 정선문제 풀이 스터디로 활용했고, 종강 후에는 학원에서 만들어준 복습플랜을 토대로 해당 스터디원들에 몇몇의 스터디원을 추천해서(총6명) 복습 스터디를 지속했습니다.**

경제학 3순환 시기에 진행한 스터디는 강의에서 풀이해주신 중심 문제들 중에 풀고 싶은 문제를 10문제 정도를 스터디원들과 함께 정하고 풀어난 후 다음날 강의가 끝나면 그 문제들 중 랜덤으로 1문제의 답안을 시간 내 작성하고 답안지를 돌려 간단히 피드백을 적는 방식이었습니다. **피드백을 할 때 강의에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서로 질문하면서 부족한 개념을 보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습 강제성과 질적 보충의 차원에서 모두 좋았습니다. 경제학 3순환 종강 후에도 학원에서 제시해준 복습플랜을 활용해서 해당 스터디를 지속했습니다.**

P** | 2023년 5급공채 재경직 최종합격

1. 미시경제학

개인적으로 경제고사라고도 불리는 행시의 꽃은 경제학에서 가장 큰 문제 배점을 차지하는 미시경제학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2022년에는 지나치게 어려운 난도로 답을 맞히기만 해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으나, 올해 2023년의 경우는 미시경제학에서도 서술을 요하는 문제가 나왔으므로 **앞으로는 서술에도 신경 쓰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3순환 기간 동안 오전시간은 전부 경제학 문제풀이에 할애를 하였습니다. 황종휴 선생님의 '연습책'과 '3순환 정선 문제집'에 정말 많은 유형의 문제들이 있으므로 이 교재에 담긴 문제는 전부 풀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스터디원들과 수험 적합한 문제를 선별하면서 1회독을 돌리고, 별도로 표시해놓은 난도 높은 문제를 중심으로 2회독을 한 후, 그 중에서 다시 선별한 20문제 내외 중심으로 시험 1주일 전에 3회독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시경제학연습(임봉욱 저)'의 풍부한 서술을 통해 심화학습을 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거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은 상대적으로 문제풀이보다 서술이 특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2-(2)의 '재정적자의 화폐화' 문제를 백지로 제출한 것에 충격을 받아, **2022년 11월부터 황종휴 선생님의 거시경제학 강의를 1순환부터 3순환까지 차근차근 학습하면서 학과**



별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거시경제학에 자신감이 부족한 분들은 황종휴 선생님의 강의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또한 '거시경제학(이종하, 신관호 저)' 교과서를 읽고 연습문제를 풀었던 것도 교수님들의 시각과 서술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3. 국제경제학

매년 꼭 1문제씩은 국제경제학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해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순환 기간에 준비하기 벅하기 때문에, 1차 이전 혹은 2순환 기간을 활용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12월에 황종휴 선생님의 1순환 강의를 수강하고, 3순환 기간에는 정선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제경제학 정선 문제집이 국제경제학 비선택자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문제들로 잘 선별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출에서 나온 소재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기출분석을 철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반덤핑관세'의 경우 2020년 3문에 출제되었고 2년 후인 2022년 3문에서도 또 출제된 바 있습니다.

K** | 2023년 5급공채 재경직 최종합격

저는 황종휴 선생님의 강의 커리큘럼을 따라 1순환, 3순환 강의를 들었습니다. 경제학 전공이라 학교에서 미시/거시 강의를 수강하였기에 따로 예비순환을 수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미시/거시 연습책의 경우 구매를 하였으나 2순환을 듣지 않았고, 매년 3순환 강의를 들었기에 정선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행정고시 합격에 위한 경제학의 중요성은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재경직의 경우 그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경제학은 크게 미시/거시/국제경제학 3가지로 나뉩니다. 미시경제학은 결국 최적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식과 풀이가 중요합니다. 수능 수학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김영산/왕규호 저, 임봉욱 저 교과서가 유명하나 저는 교과서를 풀지는 않았습니다.

거시경제학은 학파의 주장 및 대립과 논리흐름이 중요합니다. 저는 미시경제학과 달리 거시경제학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는 학파별로 가정과 논리가 다르기 때문인데 학교수업에서는 이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황종휴 선생님의 거시경제학 강의는 타 강사 수강생들도 한 번은 들어보는 강의로 매우 좋은 강의력을 보여주십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거시경제학에 있어서는 많은 교과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정운찬/김영식 저, 이

종화/신관호 저, 김경식/박대근 저를 통독하였고 기타 교과서는 필요하거나 유명한 부분만 발췌독하였습니다. 연차가 쌓였을 때도 출제자인 교수님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 교과서를 여러 번 찾아보았습니다. ... (중략) ... 최근에는 거시경제학과 국제경제학 모두 문제를 풀고 함의를 서술하는 미시경제학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문제풀이를 고민하는 과정이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K** | 2023년(제71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

경제학은 2차 시험의 관건이자 합격의 열쇠인 만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은 90점대를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타 과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이 방과목이 되는 순간부터 빠른 합격은 요원해지는 만큼, 경제학에 수험공부의 5할 이상을 쏟으라고 감히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 (중략) ...

저는 초시 때 예비순환부터 2순환까지 황종휴 강사님의 경제학 강의를 따라갔습니다. 3순환 강의는 따로 듣지 않았습니다. 황종휴 강사님의 강의는 체계 정리가 깔끔해 경제학의 맥락을 찾게 해주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면탈 이후 재시 때에는 황종휴 선생님의 '경제학 집중 관리반'에 입반하게 되었습니다. 재시 때도 3순환은 수강하지 않았고 대신 3순환 모의고사만 응시하면서 제 위치를 가능하고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궁금한 점은 그때 그때 관리반 전용 황종휴 선생님 질문지로 제출하여 궁금증이 남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중략) ...

저는 경제학 1순환부터 황종휴 강사님의 '기출책'을 기본으로 삼아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첫 2순환과 3순환 기간에는 황종휴 강사님의 '경제학 연습책'을 풀었습니다. 2순환 교재라고 하지만 연습책은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3순환에도 집중적으로 풀이하기 좋습니다. 재시 때에는 미시, 거시 정선 문제집을 풀이하였는데 단순히 풀이에 그치지 않고 정선 해설 중 시험에 출제될 만한 내용은 따로 옮겨 적어 함의 작성을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H** | 2023년 5급공채 일반행정직 최종합격

3순환 기간에는 황종휴 경제학 집중 관리반에 들어가서 공부했습니다. 집중 관리반에 들어간 이유는 경제학이 가장 큰 문제였던 저에게 선생님께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였고, 경제학 시즌이 지나고서도 강제적으로 경제학 모의고사를 실천처럼 보고 코멘트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합격을 위한 이유 있는 선택!

황종휴 경제학

C** | 2023년 5급공채 일반행정직 최종합격

‘경제고시’라는 말이 있는 만큼 행정직렬에서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들에 비해 경제학은 정답 여부에 따른 점수 편차가 아주 큰 편이기 때문입니다. 진입 전에는 가장 자신 있을 줄 알았던 과목인데 알고 보니 아니었고, 또 그럼에도 올해 합격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한 과목이 되었습니다.

경제학의 경우 황종휴 선생님의 예비순환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황종휴 선생님의 3순환을 들었을 때에는 경제학을 어느 정도 학습한 후 들어서인지 여전히 어렵기는 해도 이전과 달리 새롭게 보이는 것도 많고, 무엇보다 다루는 범위가 넓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보다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 황종휴 선생님의 연습책을 스테디를 통해 풀기 시작했습니다. 연습책에서 못 풀었거나 막힌 문제들을 따로 모아서 농친 지점을 정리해두고, 시험 전날까지도 반복해서 다시 풀었습니다.

경제학은 답안작성 자체보다는 문제를 많이 푸는 데 의의를 많이 두었습니다. 평소에는 하루에 스무 문제 정도를 태블릿에 수식, 답, 그래프까지만 간단히 그리는 방식으로 풀었고, 답안작성은 스테디를 통해서 연습했습니다. 행정법과 다르게 경제학은 그 정도 연습만 해두어도 답안작성 자체가 막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당일 컨디션이 중요한 과목이라 생각해 시험 전날에는 최소 7시간 정도의 수면시간은 확보했습니다. 또 모르는 문제가 나왔더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보이는 뭐라도 적고 나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J** | 2023년 5급공채 국제통상직 최종합격

1. 국제경제학

경제학을 수강하지 않고 국제경제학만 공부할 경우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학 예비순환이나 1순환을 인강을 통해서라도 가볍게 수강하심을 추천드립니다. 경제학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할 경우 일정부분 호환이 된다 말씀드린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저는 황종휴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 갔습니다. 새로운 파트를 들어갈 때 해당 파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부터 알려주시면서 강의의를 하시기에 전반적인 체계를 잡기에 수월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기본서 또한 황종휴 선생님의 ‘트리니티’였으며, 수업 중 배부해주시는 자료를 트리니티 사이, 해당되는 파트에 끼워두어서 정리했습니다.

경제과목은 법과목보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종휴 선생님의 ‘연습책’을 꾸준히 풀어 나아갔

으며, 시험 직전에는 3순환 강의 때 제공해 주시는 ‘정선 문제집’을 몇 번 풀어보는 과정에서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 선택과목: 경제학

저는 국제경제학과 마찬가지로 황종휴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 갔으며, 학원강의 외에도 학교에서 경제학과 수업을 찾아 들었습니다. 순환강의를 따라 공부하였고, 황종휴 선생님의 ‘연습책’을 꾸준히 풀어 나갔습니다. 3순환 강의에서 제공되는 ‘정선 문제집’의 경우 난도가 있는 편이라 생각해 정선 문제집은 선생님께서 집어주시는 문제들만 풀고 계속해서 연습책을 푸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국제경제학과 마찬가지로, 황종휴 선생님의 ‘트리니티’를 기본서로 삼았고 수업 중 배부해주시는 자료를 끼워두어 정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J** | 2023년 5급공채 국제통상직 최종합격

무엇보다 입문 시기를 지나며 혼자 공부하는 것이 생각보다 벅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테디를 신청했습니다. 황종휴 강사님의 경제학 1순환 강의에서 같은 국제통상 직렬 두 분과 국립외교원 두 분과 함께 스테디를 편성해주었습니다. 다들 초시생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테디는 ‘트리니티 미시/거시경제학’ 내용을 복습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중략) ...

1. 기초 공부로써 경제학

국제경제학의 경우 개념 이해 및 문제풀이가 병행되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무엇보다 경제학 공부를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할 것을 권면하는데, 경제학에 대한 이해 없이 국제경제학 시험을 잘 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경제학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했었기 때문에 점수 면에서 그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경제학 문제보다는 쉬운 수준으로 나오는데다가 경제학 개념을 이해하여 문제를 풀면 보다 풍부한 답안작성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1문의 관세와 환경정책에 대해 서술할 때도 미시경제학에서 배운 부분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1순환, 가능하다면 1년의 전 과정을 듣고 개념을 익히며 여러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문제풀이 및 답안연습

경제학 과목들이 그러하듯이, 국제경제학 역시 출제되는 문제의 대부분은 계산을 통한 문제풀이가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경제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많은 문제풀이가 필요합니다. 저는 황종휴 강사님의 ‘연습책 미시경제학’, ‘연습책 거시경제학’ 및 ‘연습책 국제경제학’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다. 난이도와 중요도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공부 초반에는 중요하나 난도가 낮은 문제들 위주로 풀고 연차가 쌓이면서 나머지 문제들을 보충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냥 그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풀이를 암기하는 식의 공부는 비효율적이며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를 풀어낼 응용력을 학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정확한 개념이해에 기반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문제에서 쟁점이 된 개념, 이론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학습을 충실히 하고 문제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취하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C** | 2023년 5급공채 사회복지직 최종합격

여름이 되고, 황중휴 강사님의 경제학 1순환 실강을 등록하여 경제학 공부를 함과 동시에 오전에는 PSAT 기본강의를 실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오전, 오후 모두 강의를 수강하다보니 하루가 아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경제학 1순환은 예비순환 때와 달리 초시가 아닌 수강생들도 많아서, 예비순환만 수강한 저는 따라가기에 벅찼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라도 1순환을 처음 들으시는 수강생분들 중 따라가기 벅찬 분이 계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니 좌절하지 말라는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 (중략) ...

경제학 개념들이 스스로에게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도록 소화될 때까지 황중휴 강사님께서 수업시간에 추천해주시는 교과서들을 정독 하였습니다. 문제를 풀면서도 해당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 의도가 무엇인지 고민하였습니다. 안 풀리는 문제는 해설을 보지 않고 이틀이고 삼일이고 밥 먹을 때나 샤워할 때 고민하였습니다. 고시만 내에서 경제학 스터디를 진행하며 강제성도 유지하였습니다.

S** | 2023년 5급공채 재경직 최종합격

경제학은 이해와 문제풀이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황중휴 선생님의 강의가 이해와 문제 풀이를 잡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예비순환~1순환 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경제학 원리를 이해하였습니다. 강의시간이 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자세하기 때문에 후에 심화문제를 풀 때 기반이 되었습니다. 예비, 1순환의 경우 재시 이후에 다시 듣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처음 수강할 때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여 기본원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암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의교재인 '연습책'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모여져 있어 강의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일단 유사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도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1. 미시경제학

미시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답'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저는 황중휴 선생님의 연습책과 정선 문제집을 기본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하였고, 재경직으로 변경한 3년차 이후부터는 임봉욱 저 미시 연습, 김영산/왕규호 저 미시 등 교과서 연습문제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처음 2순환을 들을 때까지도 연습책에 있는 문제의 절반 이상을 해설이 없으면 혼자 풀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문제가 빨리 풀리지 않으면 참지 않고 해설책을 펼치곤 하였는데 이런 습관이 혼자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방해했던 것 같습니다. 초심자일수록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기본서를 참고하여 그 기본원리를 활용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문제를 풀기 보다는, 적은 문제라도 그 문제를 꼭꼭 씹어 완벽히 소화하는 방법이 빠른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험생이 겪는 과정이고 경제학은 특히 이 과정을 통해 실력향상에 가속이 붙을 것입니다.

저는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 문제를 풀었습니다. 답을 맞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기에 풀이과정을 굳이 자세히 적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래프는 간단하게라도 그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풀이과정과 목차잡기는 3순환 기간 모의고사 답안을 작성하면서 고민해도 충분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2. 거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또한 정확한 답을 도출한 수험생이 고득점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전학파에서 케인즈학파, 신고전학파 등으로 이어지는 경제학적 관점의 변화와 그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정답 도출의 기반이 됩니다. 교과서 하나를 골라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도 되고, 강의를 통해 이해하셔도 됩니다. 강의는 교과서를 종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방법을 취하셔도 무방합니다. 논리의 흐름을 이해한 후에는 미시경제학과 동일하게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관련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Y** | 2023년 5급공채 재경직 최종합격

5급공채가 종종 '경제고시'로 불린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경제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 수험을 시작할 때 여러 합격수기를 참고하여 황중휴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끝까지 황중휴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랐습니다.

경제학 고득점을 위해 했던 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경제학 자체가 이해와 응용의 과목일 뿐

합격을 위한 이유 있는 선택!

황종휴 경제학

만 아니라, 주관식 시험의 특성상 답안지에 개개인의 사고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험 초반에 교수님 저 경제학 교과서들을 수없이 반복하였으며, 개념서의 말이 이해되지 않으면 역으로 문제를 풀거나 답지를 보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황종휴 선생님께 질문지를 드려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 (중략) ... 문제를 단순히 답을 내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원모의고사처럼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 역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침식반이나 현장강의 모의고사는 빼먹지 않고 답안지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실전은 2시간 안에 100점의 문제를 답안까지 작성해야 하므로, 모의고사에 성실하게 참여하시길 추천합니다. ... (중략) ... 황종휴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4문제가 출제되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라는 조언을 하셨던 것이 기억나 쉬운 문제는 초안을 잡지 않고 바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 | 2023년(제1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

황종휴 선생님의 예비순환을 듣고 다이제스트 교재와 이준구 저미시경제학 교과서를 읽었습니다. 강의에서 다루시는 문제와 교과서에 있는 연습문제를 풀었습니다. 거시경제학 부분에서는 교과서도 읽지 않았기에 예습, 복습 없이 강의만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으나, 시간 상 진도 상 넘어갔습니다. 크게 집착하지 않고 일단 머리에 개념을 넣어두는 시기라고 생각했으며, 지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다음 순환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순환강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인강으로 1순환을 들을 때 적어도 트리니티에 수록된 기출문제, 연습문제와 수업 중 선생님께서 골라주시는 기출문제는 혼자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트리니티가 추후 오래 쓸 경제학 단권화라고 생각하고 강의자료 등을 간략히 정리해서 기록해두거나 중요한 필기를 추가해 두었습니다. ... (중략) ...

3순환 기간에는 스터디를 최대로 활용하였습니다. 3월 황종휴 선생님의 경제학 3순환 실강에서 첫 스터디를 꾸렸습니다. 첫 스터디에서 주 5회 3순환 강의 종료 직후 랜덤 문제를 풀고 서로 채점 및 침식하였습니다. 그 인연을 이어 4월부터 6월까지 주 3회 경제학 문제풀이와 4월에는 국제정치학 기출답안작성, 5월에는 국제법 기출개요작성 스터디도 함께 하였습니다. ... (중략) ...

경제학 3순환 실강 전에 당일 수업 범위를 트리니티로 미리 복습하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 중 언급하신 문제나 스터디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10~12문제 고르고 다음 날 스터디 시간에 그 중 하나를 랜덤으로 골라 총점+5분 동안 풀고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스터디원끼리 답안지를 돌려 채점하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해당 10~12문제만 풀어도 복습할 시간이 안 남을 정도로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또 매일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전 차시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고 생소한 유형의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3순환 종료 이후 6월 첫째 주까지 다른 과목 강의를 들으면서 매주 3회로 황종휴 선생님의 정선문제 풀이 일정에 맞춰 랜덤 미시 1문, 랜덤 거시 1문을 총점+10분 동안 풀고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정선문제 풀이 일정이 종료된 이후는 기출문제까지 포함하여 남은 기간에 맞춰 문제를 분배하여 일정을 짰습니다.

S** | 2023년(제1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

경제학의 경우 문제풀이 능력이 거의 8할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 통합논술 경제학을 제외하고 경제학 시험에서 함의와 일반서술을 중요시하는 추세에 따라 이 부분 역시 놓치지 않고 챙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은 넘치게 공부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라고 생각되었기에 황종휴 선생님의 정선 문제집을 하루에 20~25문제 푸는 스터디를 조직해서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습책 풀이를 병행했고 국제경제학이 외교관 시험에서 역시 중요하기에 국제경제학 문제풀이와 입법고시 기출문제 풀이 스터디에 참여하여 미리미리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경제학 역시 어렵지만, 국제경제학은 생소하고 더 어렵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익숙해질 수 있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2023년도 시험에서 통합논술이지만, 일반균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제경제학의 범위를 행시에서 출제되는 어려운 영역까지 학습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과 국제경제학 같은 경우는 1차 시험과 병행하여 웬만하면 끝까지 가져가주셔야 3순환에 바로 돌입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차 시험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전주까지, 1차 시험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1월까지는 꼭 같이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 | 2023년 5급공채 일반행정직 최종합격

경제학을 잘하면 수험에 매우 유리합니다. 논문과목의 만점을 대략 70점으로 본다면 수험생간 점수 편차는 70점~40점(최소점수) 사이의 30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은 100점 근처의 점수도 나올 수 있기에 점수편차가 60점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 공부를 시작한다면 경제학부터 확실하게 잡아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시의 경우 수험경제학 수준에서는 다른 것보다 '계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다양한 문제를 풀어 보아



서 여러 유형의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반복적인 계산훈련을 통해 실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수강, 교과서 및 기본서 읽기를 통한 기본적인 원리이해 → 연습책 등 문제집 풀이를 통한 다양한 문제유형 학습 → 심화문제집 풀이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미시경제학 추천교재

- 기본서: 미시경제학(김영산, 왕규호), 트리니티 경제학(황중휴)
- 기초문제집: 연습책과 같은 2순환 교재
- 심화문제집: 트리니티 완성하기와 같은 3순환 교재, 미시경제학 연습(임봉욱) + 황중휴 선생님 3순환 모의고사 문제, 각 대학별 모의고사, 한국은행 공채문제 등

K** | 2023년 5급공채 일반행정직 최종합격

2차 과목 중 2년 연속으로 경제학이 과락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는 경제학에만 올인하자는 생각으로 경제학 공부만 했습니다. 황중휴 선생님의 1순환 강의를 인강으로 다시 수강하며, 2순환 실강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2순환 수강 시기에는 수업 진도별로 미리 연습책 문제를 예습하고 수업 이후에는 진도를 나간 부분만큼 복습하는 방식으로 하루종일 경제학에 집중했습니다. 경제학 종강 이후에는, 매일 연습책 30문제씩 문제를 풀었습니다. ... (중략) ... 올해 2차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황중휴 선생님의 연습책, 정선 문제집을 위주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푸는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20문제 정도 푸는 것을 목표로 문제풀이를 하였고, 회독이 반복되면서 하루에 30문제 풀이도 가능했습니다. 본인의 풀이 속도에 맞춰 적절한 문제풀이 분량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C** | 2023년 5급공채 일반행정직 최종합격

황중휴 강사님의 트리니티 미시와 거시를 메인으로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연습책 미시와 거시 2판을 메인으로 계속 공부했습니다.

경제학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문제를 접하고 어떻게 푸는지를 알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연습책에 있는 문제들을 밑에 있는 풀이와 함께 보며 어떠한 문제를 어떤 풀이를 통해 푸는지를 익혔습니다. 행시 경제학에서 비슷한 문제들과 풀이들이 반복된다고 생각했기에 어려운 문제들을 새로 풀기보다는 연습책에 있는 문제들을 반복해서 문제가 출제됐을 때 틀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J** | 2023년 5급공채 재경직 최종합격

1순환 때에는 개념학습에 중점을 두었으며, 2순환 때에는 진도에 맞게 연습책을 풀었고, 3순환 때에는 정선 문제집을 풀고 나머지 기간 동안 연습책의 틀린 부분을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2022년 2차 시험 이후부터는 스터디원들과 함께 한국은행 기출을 풀고 임봉욱 저의 어려운 문제를 2번 이상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 (중략) ...

거시경제학의 경우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큰 흐름을 잡고 이야기를 읽듯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황중휴 선생님의 거시경제학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시경제학은 미시경제학에 비하여 외워야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만큼 서브노트를 작성하여 주요 개념을 외우고 문제를 풀면서 몰랐던 개념을 정리하고 반복하여 학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3년 2차 시험의 경우 문제의 함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개념정리를 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P** | 2023년 5급공채 재경직 최종합격

황중휴 선생님의 예비순환은 경제학을 전혀 배워보지 못한 저의 입장에서 이해가 잘 되는 강의였습니다. 선생님의 유려한 설명으로 책으로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던 경제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중략) ... 2차 시험 과목에 대한 공부가 미진하였기 때문에 다음 해 합격을 목표로 공부를 지속했습니다. 1차 시험 직후 황중휴 선생님의 경제학 1순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예비순환 때의 알고 구멍 뚫린 개념들을 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 (중략) ...

1차 시험 이후 3월에 황중휴 선생님의 경제학 3순환을 인터넷으로 수강하는 동시에, 답안 스터디를 구성하였습니다. 3순환 모의고사를 100점으로 구성하여 답안을 2시간 동안 작성하고 이를 돌려보았습니다. 또한 황중휴 선생님의 3순환을 수강하면서, 강의를 듣기 이전에 문제를 모두 풀어보고 강의를 들으면서 이를 복습하였습니다. 특히 강의를 듣기 이전에 문제풀이가 수월했던 경우 2배속으로 빠르게 듣고, 어려웠던 경우 천천히 수강하였습니다. ... (중략) ...

국제경제학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경우, 초시 때는 황중휴 선생님의 <경제학을 위한 국제경제학 강의>와 같은 특강들을 수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시 이후에는 국제경제학 1순환 정도는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최근 들어 경제학에서 잘 나오지 않던 국제경제학 개념이 출제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2023년 입법고시의 IS-LM-IRP 모형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제학 정규순환 강의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격을 위한 이유 있는 선택!

황종휴 경제학

O** | 2023년(제11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

저는 첫 1차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1순환 시기부터 황종휴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경제학 전공도 아니고 학교에서 경제학 수업도 거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강조하시는 황종휴 선생님의 방식이 저에게는 잘 맞았습니다. 기초적 개념부터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웠고 경제학 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3순환 기간 전까지는 지방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 답안을 시간 맞춰 작성해 본 경험도 별로 없고 스스로의 실력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올해 3순환 시기에 고시촌으로 와서 경제학 3순환을 실강으로 들으면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을 때도 많았지만 가끔 50등 이내에 들기도 했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학은 따로 단권화 노트를 만들지는 않았고 교재나 자료를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꼭 적어야 하는 요소로 '개념-풀이-그래프'를 항상 떠올리며 요소를 빠뜨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아가 가능하면 함의 등의 내용도 추가적으로 적어 답안을 풍부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이를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꾸준히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학 실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지는 못했고, 강의에서 선생님이 풀어주시는 문제나 꼭 보라고 언급하신 문제라도 다시 풀고자 했습니다.

J** | 2023년 5급공채 재경직 최종합격

초시 때는 별도 문제집은 보지 못했고 1순환, 2순환만 수강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문제풀이 연습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과락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시 때는 항상 순환 강의와 문제집을 병행했습니다. 1순환 기간에 황종휴 선생님의 미시/거시 연습책을 풀었고, 2순환 기간에는 김영산/왕규호 저와 임봉욱 저 미시경제학 교과서와 정운찬/김영식 저와 맨큐 저 거시경제학 교과서를 보았습니다. 타 과목 순환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경제학은 매일 15~20문제를 풀었고 전 범위에 대한 감을 잃지 않기 위해 미시와 거시를 격일로 번갈아 가며 공부하였습니다.

J** | 2023년 5급공채 일반행정직 최종합격

황종휴 선생님의 예비순환부터 1순환, 2순환, 3순환을 모두 수강했습니다. 당시에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서 깊게 고민하는 대신 문제풀이 방식을 외운다는 생각으로 연습책을 반복적으로 풀었습니다. ... (중략) ... 3순환 기간에는 정선 문제집을 스스로 풀고, 인강

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웠습니다. 삼시 때는 기초로 돌아가 경제학적 사고를 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연차가 쌓이니 교과서가 달리 읽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교과서 연습문제, 한국은행 기출문제, 대학 모의고사 등을 구해서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늘리고, 문제의 배경에 있는 경제학적 함의를 읽어내려고 노력하며 풀었습니다.

K** | 2023년 5급공채 일반행정직 최종합격

제가 수험생활 동안 했던 방식을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순환강의를 착실히 따라가며 문제집을 풀었고, 연차가 쌓이면서 정운찬, 김영식 교수님의 거시경제론과 김경수 교수님의 거시경제학 교과서를 보고 해당 책에 있는 연습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보던 문제집 회독도 병행했습니다. 특히 올해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황종휴 강사님의 정선 문제집을 풀었는데, 글을 작성하면서 보니 결국 저는 교과서 탐독과 문제풀이를 모두 한 것 같습니다.

국제경제학은 시간상의 이유로 따로 교과서를 보기보다는 기존에 강의를 위주로 정리한 내용과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황종휴 강사님의 거시 정선문제를 풀면서 후반부에 국제경제학 파트가 있어서 이 역시 풀어보며 대비했습니다.

J** | 2023년 5급공채 일반행정직 최종합격

황종휴 선생님의 예비순환부터 1순환, 2순환을 따라갔습니다. 3순환의 경우 기본을 탄탄히 하자는 생각으로 강의는 따로 수강하지 않았고, 3순환 모의고사를 스터디원들과 함께 시간을 재고 답안지에 풀이해보았습니다. 3순환 기간에는 예비, 1순환, 2순환 필기 및 3순환 교재, 트리니티, 연습책 등을 풀면서 중요했던 개념이나 풀이법을 단원별로 정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이는 경제학 전반을 머릿속에서 구조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시경제학의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하루 최소 10문제는 풀기 위해 노력했고,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20문제씩 풀이했습니다. 거시경제학의 경우에도 답도출에 집중했지만 미시경제학보다는 상대적으로 답을 도출하는 원리를 반복해서 익히며 변형된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기 위한 깊은 이해를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K** | 2023년 5급공채 재경직 최종합격

2차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휴학을 하고 고시촌으로 올라갔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학과공부와 병행하다 보니 2차 공부를 제대로 못 했



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 점수가 낮게 나왔고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개념이 흔들린다는 생각에 황중휴 강사님의 경제학 1순환, 국제경제학 1순환을 수강했습니다. ... (중략) ... 경제학 고득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문제들을 정확하게 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면 시험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문제해결능력을 길러 예상하지 못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틀리게 되는 경우 배점을 거의 다 못 받는다는 것이 통설인데 이렇게 된다면 그해 합격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연습할 때부터 계산을 틀리지 않는 것이 실전에서도 틀리지 않을 확률을 높일 것입니다.

W** | 2023년 5급공채 재경직 최종합격

본격적인 문제풀이는 2순환 강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1순환 기간에 개념 보충과 함께 문제풀이 및 답안작성 연습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했다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2차 시험을 대비할 때에는 2순환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문제 및 수업시간에 풀어주는 문제만을 풀었으나, 1차 시험에 더 집중하는 바람에 복습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과오를 바로 잡고자, 두 번째 2차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2순환 강의를 인강으로 들으면서 황중휴 선생님의 미시/거시경제학 연습책 및 5급공채/입법고시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강의는 배속해서 들으면서 이해하지 못한 문제만 해설을 듣고, 나머지 문제들은 혼자 풀면서 '정답'을 도출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미시경제학 난도가 높아지는 요즘 추세에서, 답이 정확하지 않다면 점수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시경제학은 정답 도출과 함께 전반적인 이론 이해와 그에 맞는 그래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각 학파의 주장 및 가정에 따른 그래프, 그리고 각 가정 하에서 변수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 (중략) ... 정선 문제집은 3회독, 그 외 다른 모의고사는 2회독을 함으로써 풀지 못한 문제들을 복습하고 신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K** | 2023년 5급공채 일반행정직 최종합격

강의는 황중휴 선생님의 경제학 커리큘럼을 그대로 수강하였습니다. 황중휴 선생님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끊임없이 인사이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전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직관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러한 부분을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경제학 강의 시즌이 아닐 때에도 연습책을 계속 풀었습니다.

K** | 2023년 5급공채 일반행정직 최종합격

여전히 경제학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껴 1순환을 한 번 더 연달아 수강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이때 충분히 경제학과 씨름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경제학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트리니티에 수록된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면서 스스로 풀 수 있을 때까지 해설을 보며 지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이후 2순환 기간에도 여전히 경제학 실력이 부족해 연습책의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었기 때문에 수업 때 풀어주시는 문제만이라도 스스로 풀 수 있도록 반복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기초가 약하다고 생각해 많은 문제를 접해보는 것보다 수업 때 풀었던 문제만큼이라도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중략) ... 이후로는 트리니티로 해당 개념을 정독하고, 트리니티에 수록된 대표 문제를 푼 뒤에 연습책을 홀수번/짝수번으로 나누어 풀었습니다. 따로 연습책 풀이 인증 스티커 등은 하지 않았는데,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하루에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개념과 풀이과정을 완전히 숙지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P** | 2023년 5급공채 일반행정직 최종합격

문제풀이 외에도 시험 직전 개념을 천천히 정리하거나, 개념이 흔들릴 때 참고할 수 있는 단권화 자료를 만드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저는 트리니티 교재를 활용하여 암기가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을 칠하는 식으로 정리하였으며, 연습책 및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기억해야 할 새로운 내용이나 인사이트가 있다면 이를 해당 파트의 날개부분에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단권화 교재가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는, 순환을 진행하며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마다 해당 파트를 읽어 보았고, 시험 직전에 전체내용을 꼭 훑으면서 암기하고자 하였습니다.

K** | 2023년 5급공채 일반행정직 최종합격

실제로 제가 학교를 병행하지 않아도 되었던 2021년 당시 11월 즈음에 황중휴 선생님 2순환 강의를 들었고, 그 강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어, 2022년 PSAT을 본 뒤, 2차를 준비할 때에도 시행착오 없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 (중략) ... 황중휴 선생님 미시경제학 연습책 소비자 이론 파트에서 특정 수량 이상을 소비할 때 가격할인이 있어 예산제약이 복잡해지는 유형과 같이 '예산제약선이 불연속한 경우 등의' 문제들을 풀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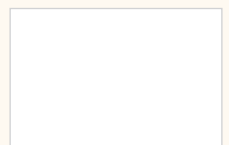


합 격 을 위 한
이 유 있 는 선택

HIGH SCORE ECONOMICS

황종휴 경제학

2023년 최종합격자들의 경제학 공부이야기



'합격한, 그리고 합격할 여러분의 이야기'

Daum cafe <http://cafe.daum.net/gosi-one>